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금리인하 없으면 경기둔화 도래 연준 의장에는 해임 압박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선제적 수요 축소되는 여름부터 경제활동 감소할 전망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양호한 성장률로 금리인하 필요성 감소
 - 일본 이시바 총리,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을 계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의 연준 압박 및 관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트리플 약세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트럼프의 연준 관련 발언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 등으로 3년래 최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1%, 0.9%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가능성, 재정 위험 우려 등을 반영
독일은 부활절 연휴로 휴장

※ 뉴욕 1M NDF 증가 1418.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1.7원, 0.18% 상승). 한국 CDS 약보합

		4/21일	4/18일	전일대비			4/21일	4/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158.2	휴장	-2.36%	국채 금리 10y	미국	4.41%	휴장	+9bp
	유럽	휴장	휴장	-		독일	휴장	휴장	-
	중국	3,291.4	3,276.7	+0.45%		영국	휴장	휴장	-
	일본	34,280	34,730	-1.30%	CDS 5y	한국	35bp	35bp	-0bp
	한국	2,488.4	2,483.4	+0.20%		중국	67bp	67bp	-0bp
	달러지수	98.35	99.23	-0.88%	위험 지표	EMBI+	-	휴장	-
환율	유로화	1.1515	1.1393	+1.07%		VIX	33.82	휴장	+14.06%
	엔화	140.86	142.18	+0.94%		WTI유	63.08	휴장	-2.47%
	위안화	7.2918	7.2997	+0.11%	원자재	구리	472.9	휴장	-0.22%
	원화	1,419.1	1,423.3	+0.30%		금	3,424.0	휴장	+2.9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금리인하 없으면 경기둔화 도래. 연준 의장에는 해임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 에너지 비용과 식품 가격이 상당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주장. 특히 의사결정이 항상 너무 늦은 사람(파월 의장)은 금리를 당장 낮춰야 한다고 강조
-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월 의장의 해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논란은 계속해서 연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결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를 공개.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율 조작,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 수출 및 정부 보조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농업 기준 및 기술 기준, 불법 복제 및 지식재산권 도용, 환적 등이 포함
- 아울러 이러한 부정행위를 수정해야 하며, 관세 부담이 싫다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명목적인 관세 이외에 이러한 비관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역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평가
- JPMorgan의 최근 보고서는 예상되는 관세율 수준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이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실효 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결정되는 방안.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경기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선제적 수요 축소되는 여름부터 경제활동 감소할 전망

- 대규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제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름부터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면, 경제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한편 관세 부과로 전체 경제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관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

■ 미국 3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하락. S&P500 기업의 이익 증가율 전망도 하향

- 3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100.5를 기록, 전월비 0.7% 하락. 이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금년 S&P500 기업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6.9%로 평가하는데, 이는 연초(11.4%) 대비 낮은 수준
- Morgan Stanley의 마이크 윌슨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주가는 이미 약한 경기침체를 반영했다고 평가. 만일 경기침체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2주 전에 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주가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부연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양호한 성장률로 금리인하 필요성 감소

- 5년물 LPR과 1년물 LPR을 각각 3.6%, 3.1%로 제시하여 모두 동결. 시장에서는 1/4분기 성장률이 5.4%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통화완화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 또한 금리인하에 따른 과도한 위안화 약세 가능성과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우려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
- 한편 상무부는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합의한 국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시장에서는 양국의 이견이 커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이시바 총리,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을 계획

-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요구에 양보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특히 농산물 보호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주일미군 비용 부담도 무작정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이번 발언은 미국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발언으로 평가
-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미국의 관세 인상이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체 수요의 급감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 및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발언
- 미국 4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의 파월 의장 해임, 금융시스템 신뢰 훼손으로 금융위기 촉발할 우려 - 블룸버그

(Say 'You're Fired' and Watch What Happens)

-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연준 의장 해임 가능 여부 논의가 확대. 영국과 터키의 경우 과거 통화정책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경기침체와 극심한 고물가가 발생. 특히 정치인의 편향적인 금리인하 선호는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아울러 과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판단에 오류를 범했으나 결국 경기침체 회피에 성공. 또한 연준의 양대 책무를 합쳐 산출한 고통지수(6.6%) 역시 매우 낮은 수준. 이에 파월 의장 해임의 법적 근거는 불충분. 파월 의장의 해임은 연준의 안정성과 세계 금융 초석에 대한 기대 상실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으로 금리인하에 소극적일 가능성 - 블룸버그

(The Four Reasons Why the Fed Will Be Patient on Rates)

-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FOMC를 시작으로 연내 75~10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 상승과 성장 저해를 유도하며 연준의 양대 책무(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를 위협할 수 있다고 거론.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한다면,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금리인하에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
- 첫째, 큰 폭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 둘째, 성장 잠재력은 감소했지만, 이민자 제한 및 추방에 의한 노동력 공급 감소 가능성은 금리인하 명분을 축소. 셋째, 물가가 목표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연준의 대응 여력은 제한적. 넷째, 연준은 독립성 강조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소리

■ 미국 제조업, 수입물가 상승투자 감소 등으로 '황금기' 초입부터 난항에 직면 - 블룸버그

(The 'Golden Age' of US Manufacturing Stumbles Out of the Gate)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관세율과 물가상승 전망 등으로 필라델피아 및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는 부진. 아울러, Nvidia와 SoftBank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은 트럼프 달래기로 끝날 가능성
- 또한 국가별 협상 합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 트럼프 임기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기업은 장기 투자에 소극적. 이에 물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와 기업의 고용·투자 지연으로 제조업은 '황금기'가 아닌 '혼란기'에 접어들 소리

■ **고율 관세의 시대,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등장시킬 전망 - Financial Times**

(Mapping the high tariff world)

-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저율 관세 시대가 종식.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자본 흐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며,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
- “Made in America”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며 독일·캐나다 등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와 서비스 해지가 급증. 미국이 관세로 일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물가 상승과 효율성 저하, 정책 신뢰도 훼손 등 직간접적 피해는 이를 상회할 전망
- 인도·브라질 등 내수 중심의 신흥 강국은 무역전쟁 영향을 덜 받으면서 국제 자본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유럽 또한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 여러 국가들이 공동 대응과 상호 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관세 시대의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등장할 무대가 조성

■ **미국의 對중국 정책, 위험하고 자기 파괴적 특성이 내재 - 블룸버그**

(US China policy is dangerous and self-defeating)

■ **미국 트럼프의 경제정책, 실제 데이터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 소요 예상 - WSJ**

(Trump Is Everywhere Except in the Economic Data)

■ **미국 트럼프의 경제정책 실수, 미국 자신이 최대 피해자가 될 전망 - Financial Times**

(The US, not others, will feel most pain from its economic mista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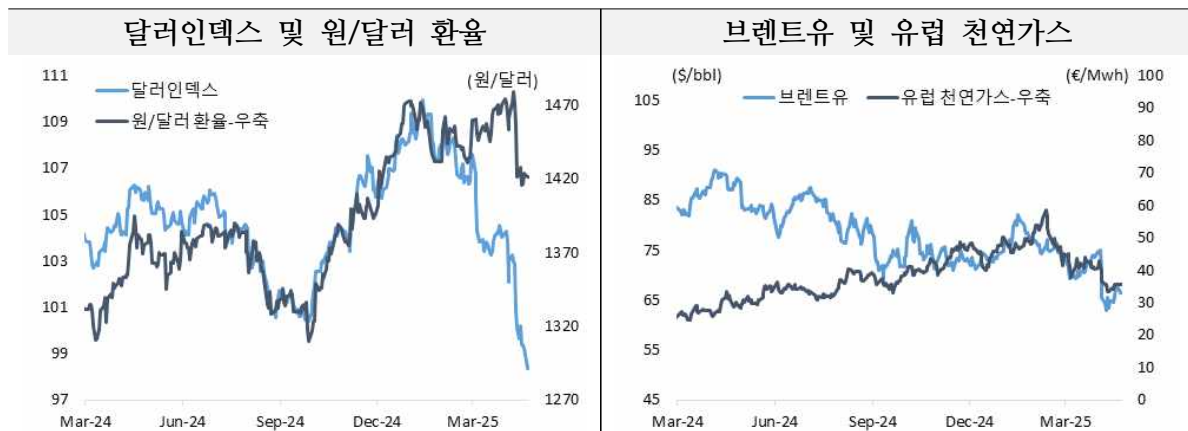
■ **미국 대형은행, 무역 갈등 심화·유럽계 은행 경쟁력 향상 등으로 지배력 약화될 소지 - WSJ**

(How Long Will Big U.S. Banks Continue to Lead the World?)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